

영 화

# 기발하거나 파격적이거나

영화의 모든 것을 '한방'에... 관객 사로잡는 포스터

'영화 포스터, 관객을 사로잡는다.' 영화의 모든 것을 '한방'에 보여주는 영화 포스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의 공식 포스터가 나오기 전까지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티저 포스터를 시작으로 각 인물들을 클로즈업 한 인물 포스터 등 다양한 포스터들이 쏟아지고 있어 화제다.

7월 개봉을 앞둔 강우석 감독의 '이끼'가 배포한 두 번째 포스터는 주연배우들의 강렬한 비주얼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끼'는 30년 간 폐쇄된 마을을 배경으로 그 곳을 찾은 낯선 손님과 이유 없이 그를 경계하는 마을 사람들 간의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그린 영화.

포스터는 박해일과 정재영 두 배우의 대조되는 카리스마를 담은 2인 비주얼로, 각각의 차원이 다른 서스펜스를 느끼게 해준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라며 도발적으로 묻는 박해일의 물음에 반격하듯 "꼭... 알아야겠나?"고 되묻는 정재영의 대답이 인상적인 포스터다.

특히 노인으로 분한 정재영은 네티즌 사이에서 '진짜 정재영이 맞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완벽한 변신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끼'의 원작자 윤태호 역시 정재영을 보고 "자신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더욱 강렬한 캐릭터가 나온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올란 서생'의 김대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방자전' 역시 독특한 포스터로 눈길을 끌고 있다.

고전 '춘향전'을 과감하게 뒤집은 '방자전'은 춘향(조여

정)을 원했던 방자(김주혁)와 출세를 위해 사람을 이용한 몽룡(류승범), 그리고 사랑과 신분상승 모두를 가지려 했던 춘향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단원 김홍도의 춘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포스터는 아름다운 봄날 요염한 자태의 춘향과 그녀의 웃고름을 잡고 있는 방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몽룡의 구도를 통해 은밀한 사랑에 엮인 세 사람의 관계를 암시한다.

제 63회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에서 최초 공개된 '해의 흥보왕' 포스터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포스터는 춘향이 방자 위에 올라탄 포즈가 마치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심의가 반려돼 국내에서는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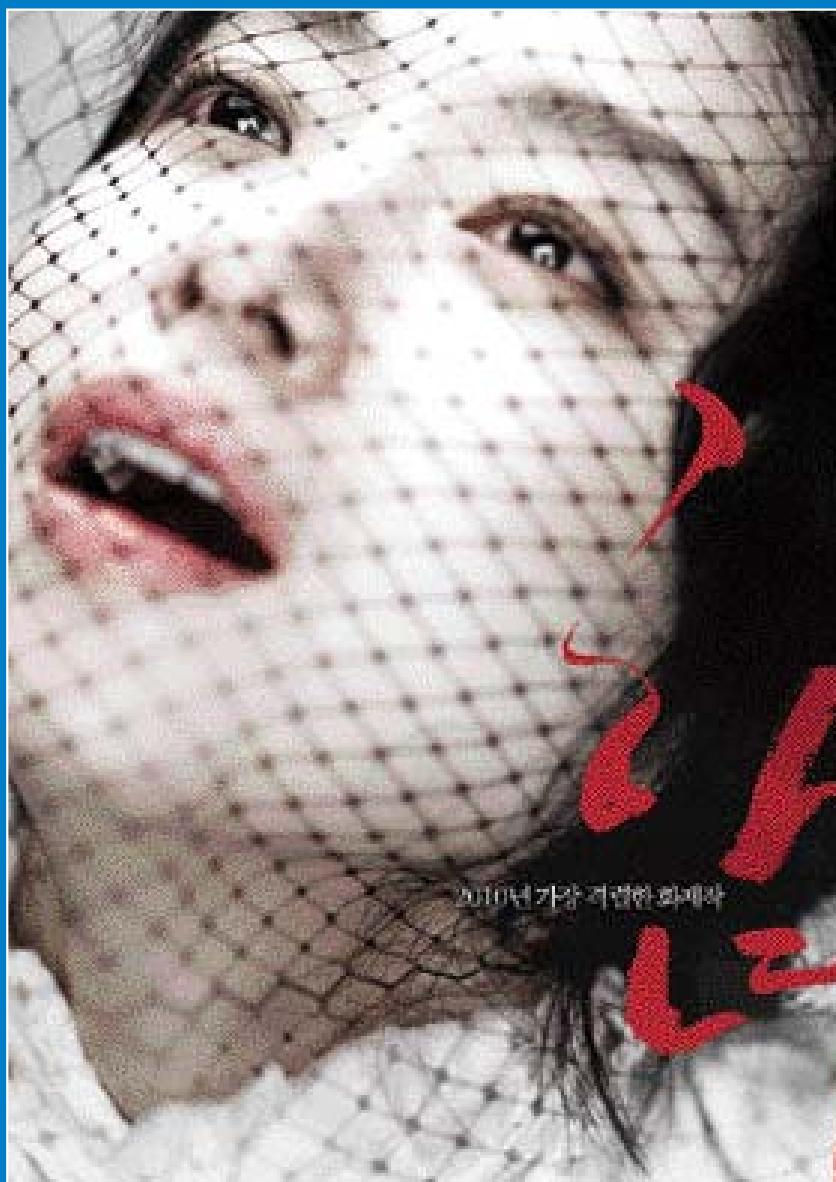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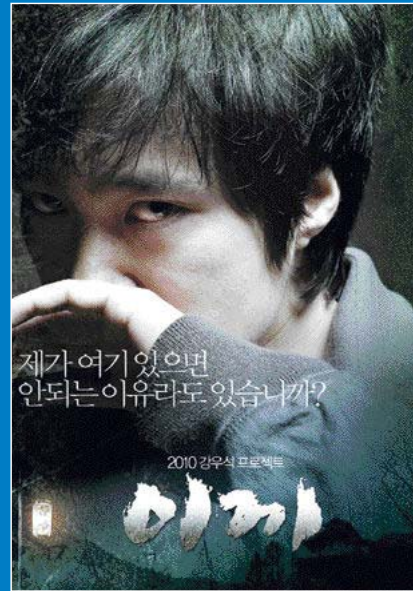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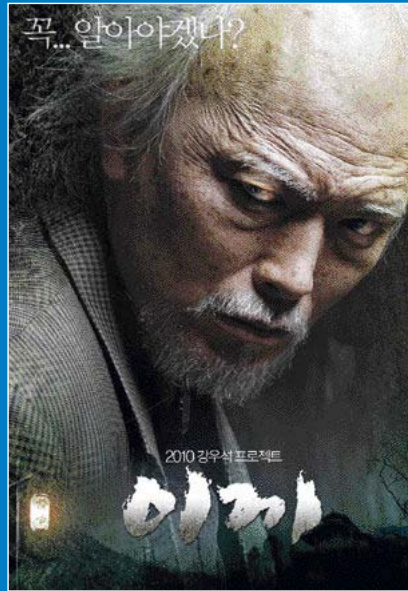
간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하녀' 역시 처음 공개됐던 티저 포스터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여주인공 은혜의 전도연을 단독으로 담은 포스터는 전도연의 야릇한 표정과 "나 잘해요, 뭐든지"라는 카피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은의 욕망을 제대로 표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준의 감독의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에서는 영화계 최초로 모션 포스터를 제작, 화제를 모았다.

모션 포스터란 기존의 정적인 영화 포스터와는 다르게 인물과 사물의 움직임을 담아낸 새로운 영상 포스터 제작 기법으로 광주 출신 미디어 작가 이이남씨가 제작을 맡았었다.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의 모션 포스터는 사계절의 변화와 달이 뜨고 지는 시공간의 흐름에 따라 배우들의 표정과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담아냈으며 특히 여주인공을 맡은 한지혜가 배경음악 '상사몽'을 직접 불러 더욱 화제가 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슈렉', '콩푸 랜더' 등을 만든 애니메이션의 명가 드림웍스의 3D 애니메이션이다.

영화는 웅장한 바이킹과 사나운 드래곤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신화적 세상 벌크 섬을 배경으로 바이킹 족장의 아들 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연약한 소년 히킵이 펼쳐는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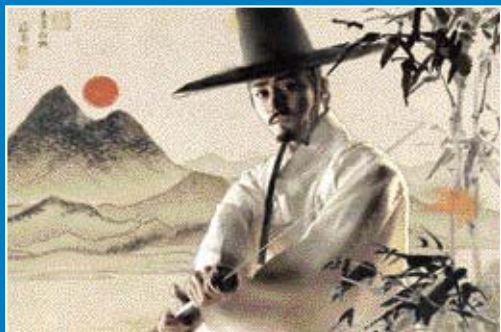
바이킹과 용들의 전쟁  
신화의 섬서 펼쳐는  
스펙터클 소년 모험담

바이크 족장의 아들 히킵은 핏줄을 의심하게 하는 왜소한 몸매로 대장간에 틀어 박혀 일한다. 마을에서 무시 당하기 일쑤인 그는 전장에 뛰어들어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하려 하지만 엉뚱한 발명품으로 마을을 싹대밭으로 만든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히킵은 홀로 시뭏락하게 산을 오르다 부상 당한 드래곤을 발견한다.

'슈렉' 등에서 보여준 위트와 유머, 탄탄한 스토리가 돋보이며 3D로 완성된 다양한 캐릭터와 벌크 섬의 환상적인 분위기, 실제 날고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선사하는 영상 등이 볼거리다. 제러드 버틀러 등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영국 작가 크레시다 코웰이 쓴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른쪽 위로부터 영화 '이끼' '하녀', 왼쪽은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 '방자전' 포스터.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대부분 청각장애가 노년기 발생한다. 노년기 청각장애는 노인성 질환이다.

www.kbcf.com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 순천점 (061) 752-9940 / 목포점 (061) 282-9200 / 송광점 (062) 227-9970 / 익산점 (063) 851-2422

www.hanbit.ac.kr

개강 ▶ 6월 1주

**암도적 1위 시설, 합격률 강사진**

**79명 공무원 종합이론반 주·야간반 개설**

전국 유일 79명 단독반 매일 1박/1수반 개강

74명 합격문과생이, 기능직 일반직 전문목차, 소방직 합격 전문목차

심화반과 | 1박2일 3박4일 3박5일 3박6일 3박7일 3박8일

수석합격자 배출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